

지역 기반 학생통합지원 안전망 강화

전북교육청, 전북자치도·경찰청·굿네이버스 등 지역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따라 학생통합지원 모델 구축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전북형 학생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경찰청,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협회 등 도내 이동·청소년·복지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취지 및 추진 방향 공유 △학교-

교육지원청-지자체-민간기관 간 협업 방안 △전북형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법 시행 전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정책 이해 및 실행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5일에는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담당자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학교 안에서의 위기학생 발견, 교육지원청의 조정, 지역기관의 연계 지원이 하나의 힘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취지인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을 통한 교육권 보장' 실현을 위해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직원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사청 수법은 △공무원 명함·소속 위조 △비공식 연락을 통한 납품 및 견적 요구 △선입금, 특정 업체 제품 구매 유도 등이다.

실제로 교육청과 계약을 진행한 나라장터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특정 업체의 흡연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문자 등 비공식 경로로 물품 납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의심 연락 시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14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물품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내 제조업체 생산한 교육물품, 학교 현장과 연결

전북교육청, 전주화산체육관서 '교육물품전시회'

교재·교구·전자기기·공사용자재 등 전시돼

전북교육청, 하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2층 강당에서 하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는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으로 교장교원이 발생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초·중·고·특수학교로, 2026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는 58개교다. 이중 교장교원학교(정년퇴직, 종임면료)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및 관심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공모제 운영 취지 △교장공모제 유형 △교장공모제 신청 및 지정 절차 △교장공모제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편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전북교육청으로 각각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교육물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교육물품을 학교 현장에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재·교구 △전자기기 △공사용자재 및 시설용품 등이 전시됐다.

도내 제조업체 70곳이 참여한 이날

'전북교육장터' 운영 △지역제품 우선 구매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담당자 시상 등 지역업체 우선구매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회는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내 기업에는 판로 확대를, 교육기관에는 경쟁력 있는 물품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학생들, 완주군 야구장 이용 가능

교육·스포츠클럽 활동 목적

전북교육청-완주군, 협약 체결

전주교대, 학교 탐방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행

전주교대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4일 학교 탐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읍왕신여중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프로그램은 대학 소개, 캠퍼스 투어를 비롯한 학교 탐방과 임시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실시됐다. 특히 입시 설명 시간에는 열띤 질문이 오가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아직 입시라는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대학 체험을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 아겠다는 걸 느꼈고, VR 체험도 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진로 탐색 체험이 학생들에게 교육대학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군 야구장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신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 △학생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공간 확보 △야구종목 체육 활동기회 확대에 따른 우수선수 발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완주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전북야구를 이끌어 갈 현재 양상을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리 군의 체육 시설을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함께 배우고, 함께 돌본다' | 전주비전대, 'VISION상생배움터' 운영



미는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심정지 생명구조 아카데미'는 대한심폐소생협회 KALS 교육과정으로, 지역사회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응

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중심의 자격증 실습 교육 과정으로 이뤄졌다. 또한 '반려동물 동행 아카데미'는 1인기구 및 독거노인을 위한 펫시터 전문 과정으로, 반려동물의 행동·복지·산업 이해를 이우르는 직업전환형 돌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어 10월에는 △시니어 배움 코치 아카데미(노인교육지도사 자격 과정) △건강매니저 양성 아카데미(병원동행 매니저 자격 과정) △일상돌봄 실전 아카데미(치매이해와 돌봄, △장애 돌봄 아카데미(장애인 활동지원) △AI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아카데미 등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13일 저녁,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학생 의견, 대학 발전의 자산"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학생들 '소통의 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3일 저녁,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 총장 취임 이후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향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과 총장이 맥주잔을 기울이며 대학생 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면서 대학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오봉 총장은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구민기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자치기구 임원과 일반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대학생활 속 학습 환경

개선과 자율적 학생활동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양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을 총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학생자치회로서 대학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은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학생 중심 대학을 보다 앞장 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특별한 사람과 함께 올려요'

25일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서 '청소년 인권골든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2025 청소년 인권골든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람과 함께 올려요. 인권골든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도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권 인식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 중학교 학령(12~15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권골든벨은 인권에 대한 퀴즈 풀이 형식으로 모두 3리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20일 1팀으로 팀을 구성, 학교나 청소년 기자

관·단체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50팀을 선정, 우수 3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상, 도지사상, 교육감상이 각각 수여된다.

이해란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청소년들과 인권에 대해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인권문화축제' 일환으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인권센터(063-237-035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태권도를 디자인하다'

전주대 태권도학과, 2025 태권도 체험·창작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2025 태권도 체험·창작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태권도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지역의 정체성과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결합한 창의적인 굿즈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체육 요소를 접목한 상품 개발을 통해 태권도 HUB 산업의 실질적 확산과 태권도의 가치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한다.

굿모는 두 가지다. 먼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만들 수 있는 참여형(Hands-on Goods) 분야는 DIY 키트, 채색·자수·조립형 제품 등 체험 중심의 교육 및 실습형 굿즈 아이디어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태권도의 상징성과 예술적 가치를 디자인적으로 구현한 완성형(Designed Goods) 분야는 피규어, 소품, 기념 오브제 등 전시·디자인 중심의 굿즈 기획을 다룬다.

참가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가능하며, 태권도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창의적 발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면 된다.

접수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는 11월 29일 무주군 무주상상비전에서 진행되는 결선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수상작은 향후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하는 태권도 체험·교육 프로그램, HUB센터 전시콘텐츠, 굿즈 상품화 사업 등으로 연계·활용될 예정이다.

태권도학과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태권도의 예술성과 산업적 가능성을 동시에 확장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div